

파올로 시리오
 PAOLO CI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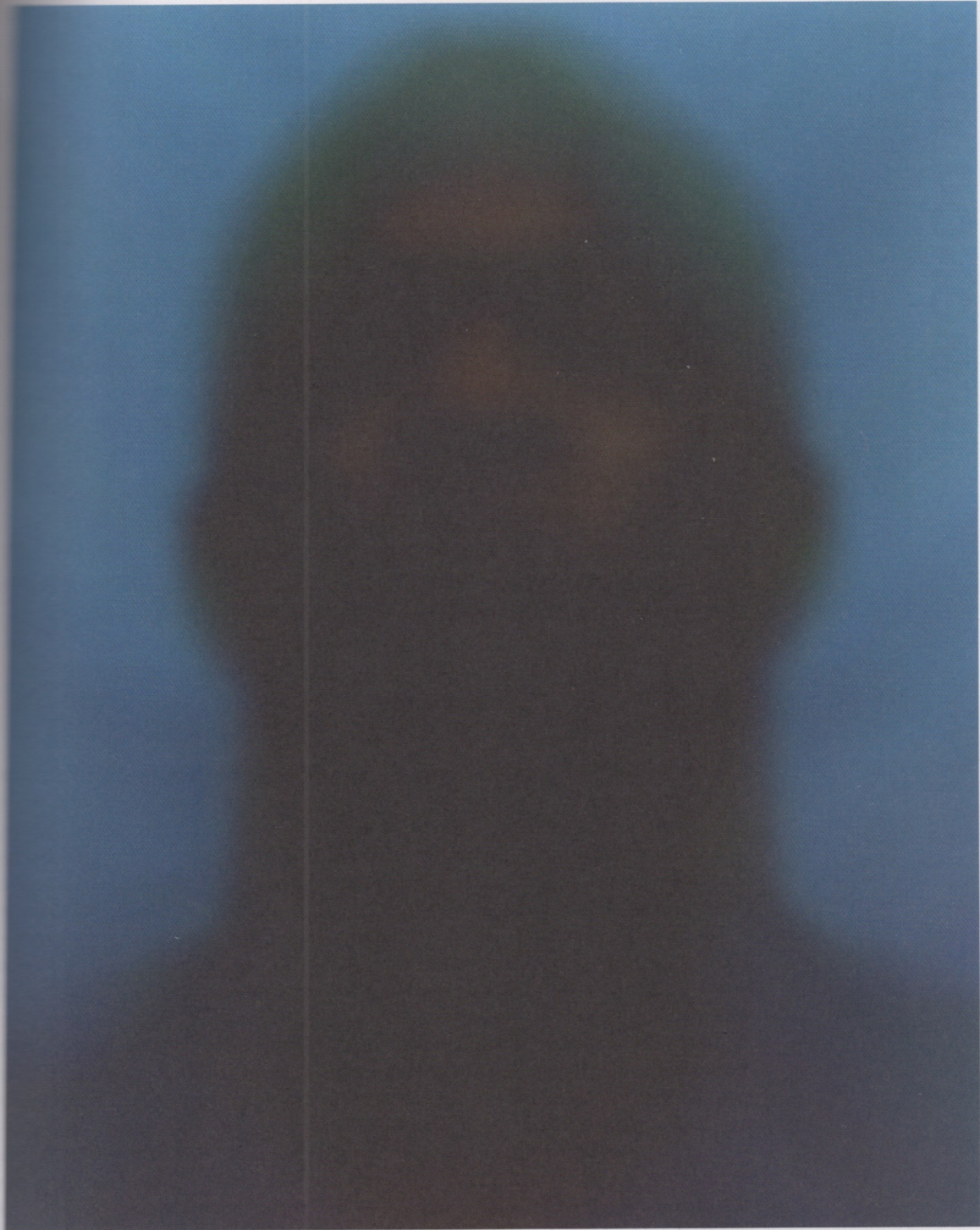
1979년 이탈리아 출생.
 뉴욕에서 작업.
 b. 1979 Italy,
 Lives and works in
 New York

개인의 사생활과 그들의 온라인에서의 현전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 물음은 파올로 시리오의 리서치 기반 예술 실천의 토대이다. 그의 작업은 인터넷이 사회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생활, 감시, 저작권과 같은 문제들과 인터넷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그의 개입주의(Interventionist) 예술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이 통제를 민주화하기보다 권력 구조들을 강화하는지 보여준다. <잊혀지기(Obscurity)>(2016)에서 시리오는 인터넷 기록상에서 스스로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위한 투쟁에 대해 다루었다. 어떻게 정보 보호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고 강화될 수 있는지는 국제적인 관심사이다. 2014년 이 개념은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구글을 상대로 패소 판결을 내렸을 때 인권의 문제로 국면이 전환되었다. 2016년에 한국방송통신위원회(KCC) 역시 개인이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특정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잊힐 권리가 아직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시리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잊히기’와 인터넷에서 ‘지워질 권리’를 위한 운동과 함께 인터넷상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을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잊혀지기>에서 그는 당사자의 유무죄에 상관없이 체포된 적이 있는 이들의 얼굴 사진(Mugshot)을 게시하고 삭제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웹사이트에 있는 15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훼손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사진을 훼손함으로써 시리오는 인터넷상에서 이 개인들의 현전을 삭제한 것이다. 그는 위험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개인의 이미지를 지움으로써 아슬아슬한 선을 넘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잊혀지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윤리와 법은 아직 우리의 온라인 세상에서의 경계를 포함하지 못한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할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적어도 이 선이 어떠한 위협 아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Where is the line between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and their online presence? This is the question that underlies much of Paolo Cirio's research-based art practice, which investigates the Internet's influence on social structures and its relation to the issues of privacy, surveillance, and copyright. His interventionist art projects highlight how search engines and social media sites reinforce power hierarchies rather than democratize control. In *Obscurity* (2016), Cirio anchors his work in a fight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a concept that argues for individuals to be allowed to hav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deleted from certain internet records. How data protection legislation is made and enforced is a matter of global concern. In 2014, this concept was turned into a human right whe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ed against Google. In 2016,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lso implemented new guidelines that allowed individuals to request search engine operators to remove certain personal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Right to be Forgotten remains elusive, and it is here that Cirio stages his challenge with *Obscurity* and *Right to be Removed* against those who have exploited the blurred line of privacy on the Internet.

For *Obscurity*, he created an algorithm that obfuscate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15 million people from non-state authorized websites that post mugshots of those who have been arrested (regardless of their guilt or innocence) and charge a fee for their removal. By obscuring the mugshots, Cirio erases the presence of these individuals, although he too treads a fine line by potentially erasing the images of those who may be guilty of dangerous crimes. Unsurprisingly, as is common in many of his hacker-art projects, he has received legal letters demanding that he cease and desist. As *Obscurity* shows, ethics and laws cannot contain the borders of our online worlds. Although we may not know where to draw the line in protecting our rights to privacy, we do know that it is a line that is under threat.



파올로 시리오 Paolo Cirio, 잊혀지기 *Obscurity*, 2016, Video installation with 40 dye sublimation prints on aluminium, Dimension of prints 10.43×14.8cm each, video (02'12"), Courtesy of the artist, Wei-Ling Gallery, NOME Gallery.

광주비엔날레

2018 GWANGJU

BIENNALE



ISBN 978-89-7059-974-8 (03600)

안그래픽스

www.agbook.co.kr

₩ 35,000